

# 구약논단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최 중화(부산장신대) 이사야 10장 34절과 유대대반란의 메시아사상 .....	138
이 논문은 유대대반란에서 나타난 메시아적 예언이 사회-정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세푸스( <i>B.J.</i> 6.285)의 분석에 근거할 때, 유대대반란은 메시아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메시아 기대가 이사야 10장 34절에 기인함을 밝히고자 한다.	
Choi, Jung-Hwa Isaiah 10:34 and the Jewish Messianism in the Great Revolt .....	138

---

## 사 10장 34절과 유대 대 반란 (The Great Revolt)의 메시아 사상

---

최 중화 | 부산장신대

### 1. 서론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실제로 역사적 정황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유대인들의 사회 행동(social behaviour)과 정치 행동(political behaviour)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기란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정치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들이 예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메시아 사상에 관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예언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측하면서도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 이상으로 알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대 대 반란(The Great Revolt, מַרְדּוֹ הַגָּדוֹל)은 이러한 면에서 메시아적 예언이 정치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예인 듯 하다.<sup>1)</sup>

---

1) 유대 대 반란이 메시아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은 많은 학자들이 따른다. (예, Brandon, Horsley, Hengel, Momigliano, Mommenson 등) 심지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L. Levine조차도 로마와의 전쟁에서 메시아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이 논문은 유대 대 반란이라는 역사적 정황 안에서 메시아적 예언이 사회-정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차 성전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인 요세푸스가 메시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사회-정치 행동을 분석하여 그 안에 메시아 사상의 영향이 있는지를, 또는 어떠한 메시아 사상이었는지를 재구성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4개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요세푸스의 *B.J.* 6.285에서 유대인들이 받기 원했던 '구원의 징조'(δεξιόμενους τὰ σημεῖα τῆς σωτηρίας)는 메시아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 *B.J.* 6.312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거짓 예언자의 '모호한 신탁(χρησιμὸς ἀμφίβολουσ)'은 *B.J.* 6.285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B.J.* 6.312에서 '모호한 신탁'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떤 구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절인가?
3. *B.J.* 6.312의 '모호한 신탁'에 대한 해석이 양분되어 있다면, 요세푸스의 해석과 반란에 참가했던 유대인들이 하였던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 2. 사 10장 34절과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

### 1) *B.J.* 6.285의 구원의 희망은 메시아적이었을까?

로마가 70년 아브월 9일 성전으로 진입하기 직전 6천 명의 유대인들은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소가 점령당하기 직전 켈롯 예언자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τὰ σημεῖα τῆς σωτηρίας)를 받기를 명하셨다고 선포한다(*B.J.* 6.285). 요세푸스가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고 성전 파괴에 대

다. 152-135쪽, .... מנמות לבין, מנמות.

2)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관해 언급하는 *Testimonium Flavianum* (*A.J.* 18.63-64)은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특이한 예외의 경우로 후대 첨가일 가능성이 높다. Cf) J. P. Meier, "Jesus in Josephus: A Modest Proposal," *CBQ* 52 (1990), 76-103쪽.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던 이 젤롯 예언자를 진짜로 믿고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구원의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파머(W. R. Farmer)는 유대인들이 산해립의 침입 때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이라 주장한다.<sup>3)</sup> 이러한 주장은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sup>4)</sup> 유대 대 반란이 산해립의 침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B.J. 5.387 이하에 나오는 요세푸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산해립은 사람이거나 사람이 만든 무기에 의해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패했다.
2. 하지만 지금의 로마는 예전의 산해립과 같지 않고,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반란군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3. 산해립의 앗시리아 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한지 하루만에 하나님이 치셨던 것에 반해 예루살렘을 포위한 티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이 산해립 때와 같은 기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B.J. 5.408f).

파머(Farmer)의 해석과 더불어 '구원의 징조'의 다른 해석도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 4 에스라서 13장 32-35절이나 막 13장 14-26절을 인용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막 13장은 '멸망의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표적으로 구원자로서 '인자'(ὁ υἱος τοῦ ἀνθρώπου)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 4 에스라 13장 32-35절 역시 '인자'에 대한 환상으로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시온 산 꼭대기'에 선다는 내용이다. 만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징조'가 제 4 에스라 13장과 막 13장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면, 이 구원의 희망은 일종의 메시아적 희망인 셈이다. 위의 해석들

3) W. R. Farmer, *Maccabees, Zealots, and Joseph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96-111쪽. "Nor do any of the many stories of the victories of Israel's great warriors have such a connection with Jerusalem except [...] the miraculous deliverance of the holy city from the hands of Sennacherib."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승리한 사건 중에서 산해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해낸 것과 비길 것은 없다) 왕하 18: 17 - 19: 36=사 37: 6-7(산해립의 침입); Columbia University Press, 마카비상 7: 37ff. & 마카비하 15: 22ff.; 8: 19(산해립의 침입의 중요성); 참조 513쪽 "... ביאורים", "מ' קיסטר", 키스터 역시 산해립의 침입과 로마의 침입이 많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4) M. Hengel, *The Zealots*, (Edinburgh: T&T Clark, 1974), 240쪽.

의 특징은 '구원의 징조'를 이야기하며 구원과 관련된 다른 구절을 끌어들이는 데 있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요세푸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도 반증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구원의 징조'에 대한 해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세푸스가 유대 대 반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B.J.* 6.312-313을 주목해 보자:

유대인들을 전쟁으로 몰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성스러운 글들에(ἐν τοῖς ἱεροῖς εὐρηγένοσ γραμμασι) 나오는 모호한 신탁(χρησιμὸσ ἀμφίβολοσ)이다. 그 때에 유대인의 땅에서 나온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ὡσ κατὰ τὸν καιρὸν ἐκείνον ἀπὸ τῆσ χώρασ αὐτῶν τις ἄρξει τῆσ οἰκουμένησ).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잘못된 해석을 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메스파시아누스에 대한 것이었다.

*B.J.* 6.312는 *B.J.* 6.285를 이어 계속해서 성전 파괴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구원의 징조'를 이야기하였던 *B.J.* 6.285 이후 요세푸스는 성전이 파괴될 징조가 미리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B.J.* 6.312는 이 논지의 연속으로 '모호한 신탁'(χρησιμὸσ ἀμφίβολο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많은 유대인들로 로마와 싸우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J.* 6.312는 *B.J.* 6.285의 해석과 텍스트의 근접성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기에 다른 가설들에 비해 '구원의 징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가 신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인즉 유대인의 땅에서 나온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성스러운 글들, 즉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B.J.* 6.285에서 살펴보았던 '구원의 징조'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라틴어로 쓰인 사료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1-2세기에 살았던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오리엔트에 널리 퍼진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운명이라는 것이다

(*Vesp* 4, 5).<sup>5)</sup> 이와 더불어 원로이자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Tacitus, AD 56-117)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Hist* 5,13).<sup>6)</sup>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설명하며] 대부분은 믿기를, 유대인 제사장의 글들에(inerat antiquis sacerdotum litteris)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동쪽이 강해질 때 유대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eo ipso tempore fore ut valesceret Oriens profectique Iudaea rerum potirentur). 이러한 신비로운 예언이 실제로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를 가리킨 것인데,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 욕심으로 이 커다란 운명을 그들에(유대인들에) 대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타키투스의 *Historiae*(역사)는 69년부터 도미티아누스가 있던 96년까지 쓰인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여러 황제가 바뀌어 혼란하던 69년부터 시작하여 플라비우스 왕조의 시작인 베스파시아누스 70년대 초반까지이다. 위에서 인용된 *Hist* 5, 13은 티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의 큰 업적인 AD 70년 유다 정복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에, 요세푸스의 '모호한 신탁'(B.J. 6.312)과 같은 역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세푸스와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타키투스의 증언은 일치하는 점이 아주 많다. 세 사료를 바탕으로 공통 분모를 찾아 보면, 무엇보다도 세 사료가 성경을 예언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타키투스의 '제사장의 글들'(inerat antiquis sacerdotum litteris)이나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성스러운 글들'(ἐν τοῖς ἱεροῖς εὐρηθένος γραμμασιων)은 성경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또 하나 공통 분모는 유대 지방에서 나올 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통 분모는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해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가 베스파시아누스와 타키투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베스파시아누스나 타키투스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 지방에서 나와 세상을 다스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5) M. Stern, *Greek and Latin Authors on Jews and Judaism*, Vol. II, (Jerusalem: Israel Academy of Arts and Science, 1974, 1980), 120쪽.

6) Stern, *윗글*, 31쪽.

유대 대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희망과 '징조'는 메시아적인 구원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메시아적 구원의 희망과 그에 관련된 예언에 다가가기 위해, 여기에서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가 이야기하는 예언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 2) 사 10장 34절과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희망

일부 학자들은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가 증언하는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경 구절로 단 7장 13-14절이나<sup>7)</sup> 민 24장 17-18절을 지목한다.<sup>8)</sup> 이 두 구절은 메시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로, 유대 대 반란에서 메시아적인 희망을 주었을 가능성을 반증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유대 대 반란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반면에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 10장 34절은 유대 대 반란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서 증거들이 있는 메시아적 성경 구절이다. 이를 위해 성전 파괴 당시를 말하고 있는 몇몇 랍비 문학의 증언을 살펴보자.<sup>9)</sup>

요한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 나오고 나서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를 찾아가 황제에 하는 인사를 하였다. 요한난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인사하였다: “황제여 만수무강 하소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벤자카이가 아니냐?”

요한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베스파시아니가 말했다: “너는 나를 (황제가 아닌데 황제로 불려서) 곤란하게 했다.”

요한난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이사야 10장 34절)(하였습니다).”

(이후) 요한난은 이후 두 명의 교도관에 의해 지켜지는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3일째 되던 날 로마에서 편지가 와서 말하기를, “네로

7) R. Meyer, *Der Prophet aus Galilaea*, (Darmstadt: WB, 1970), 52-57쪽. 이 의견에 대한 요약은 Hengel, *유태교*, 238쪽 이하에 잘 나타나 있다.

8) 참조 Hengel, *유태교*, 239쪽. 행겔은 민 24장 17절을 지지하며 쿨란 문헌과 연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 요한난 벤자카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료는 총 4개지만(*AdRN*, B, 6; *Lam. R.* I, 5.31; *bGit* 56a) 지면 관계상 아봇 드라비나탄과 바벨론 탈무드만 인용한다.

황제가 죽었고 로마 사람들은 당신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라반 요하난을 불렀고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

요하난이 대답했다“ [이후 야브네를 달라고 한다]. [아봇 드라비나탄 B, 6; *AdRN*, B, 6]<sup>10)</sup>

요하난 벤자카이가 로마인들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말했다: “왕이시어 평안하소서. 왕이시어 평안하소서.”

베스파시아니 말하기를, “당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을 것이요. 첫째, 나는 왕이 아닌데 당신이 왕이라 불렀고(=그렇게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만약 내가 왕이라면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소?”

요하난이 대답했다: “당신이 왕이 아니라고 하나 실제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왕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이 당신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사 10: 34) 권능 자는 왕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쓰여 있기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렘 30: 21) 그리고 레바논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신명기 3장 25절) 만약 왕이라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는 당신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켈롯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입니다.”[바벨론 탈무드 마세켓 기틴 56a: *bGit.* 56a]

위의 두 사료는 잘 알려진 요하난 벤자카이의 이야기이다.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당시 어떻게 요하난 벤자카이가 베스파시아누스(혹은 티투스)를 만나 담판을 짓고 야브네(Yavneh)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이야기이다. 문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AdRN*, B, 6(אבות דרבבי נתן), 아봇 드라비나탄 누싸흐 벳 페렉 6)이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장 오래된 사료인 듯 하고, *bGit.* 56a(לי ב לוי) 바벨론 탈무드 마세켓 기틴 56 아무드 알렙)가 가장 후대의 사료인 듯 하다.<sup>11)</sup> *AdRN*은 7-9세기에 집대

10) 아봇 드라비나탄의 알렙 버전(אנוסא)의 경우는 스토리 전개가 조금 다르지만 이 버전 역시 사 10장 34절을 인용하며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될 것을 이야기한다. 다만 뽀버전(בנוסא)에 비해 친절하게 이사야서 10장 34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준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성전은 일반인의 손에 넘기어지지 않고 왕의 손에 넘기어진다 했습니다(אין בית המקדש נמסר ביד הריוט אלא ביד המלך). 성경에 기록되기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AdRN A 4,5)

11) 베스파시아누스와 요하난 벤자카이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아봇 드라비나탄이 가장 단순



성된 책이지만, 전승은 타나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sup>12)</sup> *AdRN*보다 늦은 전승을 가지고 있는 *b.Git.* 56a가<sup>13)</sup> 랍비 요셉(c. 330 AD)와 랍비 아키바(c. 120)의 이름으로 이 전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전승은 랍비 아키바 시대(c. 120) 이전의 타나임 전승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성전 파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전승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승의 역사성이 아니라,<sup>14)</sup> 성전 파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듯한 이 전승이 주목해서 성전 파괴와 연결시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 10장 34절이라는 것이다.

וַיִּקְרַע סִבְכֵי הַיַּעַר בְּבֵרֶךְ וְהִלְכֵנוּ בְּאַדְרִיר יוֹפֵל :

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벨론 탈무드 기틴이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AdRN*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요한난 벤자카이를 아는데 비해, 애가 라바(*Lam. R.*)와 바벨론 탈무드(*b.Git.*)에서는 모른다. 전승이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발전해 갔을 가능성이 적기에 아봇 드라비타탄의 전승이 가장 이를 것이다. 내용을 봐도 쉽게 전승의 발달을 알 수 있다. 아봇 드라비타탄에서는 요한난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황제에게 하는 인사를 올릴 때, 인사를 받은 베스파시아누스는 난색을 표하고 요한난 벤자카이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것을 사 10: 34을 인용하며 예언한다. 하지만, 이 전승이 가장 마지막 버전인 듯한 *b.Git.* 56a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요한난 벤자카이가 인사를 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난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아닌데 황제의 인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요한난 벤자카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요한난 벤자카이의 대답도 더 정교해졌다. 사 10: 34을 인용하며 당신이 왕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이 당신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사 10: 34의 אַדְרִיר(권능 있는 자)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임을 부연설명 해주고 렘 30: 21을 덧붙여 설명한다. 또한 왜 일찍 오지 못하였는가도 짚듯 때문임을 변명한다.

- 12) *AdRN*은 일반적으로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집대성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타나임들이 랍비로 등장하고 언어나 관용구 등이 전형적인 타나임의 것이기에 오래된 전승일 가능성이 높다. 아봇 드라비타탄은 전승은 늦어도 3-4세기 이전에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 참조 J. Neusner, *Development of A Legend: Studies on the Traditions Concerning Yohanan ben Zakkai*, (Leiden: E. J. Brill, 1970), 228; 232-233쪽.
- 13) 애가 라바(*Lam. R.*)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탈무드(*Yerushalmi*, ירושלמי)와 비슷하게 5세기에 집대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J. Neusner는 애가 라바(*Lam. R.*)의 요한난에 관한 전승이 *b.Git.* 56a보다 더 늦은 사료라 주장한다. J. Neusner, *유태교* (1970), 232-233쪽.
- 14) 4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 역사 사료로서 랍비 문학은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언제 요한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났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68년 봄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 로마로 떠났고 69-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그의 아들 티투스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요한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티투스를 만났을 가능성만 남는다. 두 가능성 다 랍비 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 J. Neusner, *A Life of Rabban Yohanan ben Zakkai*, (Leiden: E. J. Brill, 1960), 165-66쪽.

쇠로 그 뻣뻣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사 10장 34절은 이 랍비 전승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전 파괴 이전에 일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떻게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사 10장 34절을 인용한 랍비 문학에 비취본 베스파시아누스는 1)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차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다; 2) 베스파시아누스가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3)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될 중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자는 '권능 있는 자'(אֱדִיר)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가 했던 증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요하난에 대한 랍비 문학의 전승과 이들의 전승 사이의 공통점은 상당히 크다. 일단, 이들 모두 이차 성전을 멸망시킨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입을 모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랍비 문학의 전승은 사 10장 34절을 구체적인 성경 예언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재구성을 볼 때, 사 10장 34절이 요세푸스를 비롯한 다른 역사가들이 말하던 베스파시아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 구절은 아닐까? 사 10장 34절의 가능성은 이 구절을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살펴보면 더 확실해진다.

### 3)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니라면 누구?

#### -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한 유대인의 사 10장 34절 해석

사 10장 34절에 대한 해석으로 요세푸스나,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그리고 랍비 문학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지목하고 있다면, 과연 유대 대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 10장 34절의 해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요세푸스가 말했던 데로 심지어는 '지혜로운 자들조차 착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기 동족에게 적용했던'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을까?<sup>15)</sup>

---

15) B. J. 6.312f.

첫째, 이 예언 역시 한사람에 대한 예언이다.<sup>16)</sup>  
 둘째, 이 사람은 유대에서 나와서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한 사람에 대한 이 예언은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넷째, 유대인이 아닌 수에토니우스나 타키투스가 말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예언이었다.  
 다섯째,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 적용된다고 믿었다.  
 여섯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위의 기술로 보건 데 아마도 어떤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한 명을 취하여 왕으로 세우는 신 17장 15절을 떠올릴 수도 있다.

וְשֵׁם תְּשִׁים עָלָיָהּ מֶלֶךְ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ךָ וְבִ

מִקְרֹב אֶחָד מֵתְשִׁים עָלָיָהּ מֶלֶךְ

לְ תוֹכֵךְ לְתֵת עָלָיָהּ אִישׁ נָכָר אֲשֶׁר לֹא־אֶחָיִךְ הוּא :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블레셋과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유대인들을 곤경에서 구하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하지만 70년 아브월 9일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하여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젤롯 예언자의 신탁을 듣고 기대하던 ‘구원의 징조’(B.J. 6.285)가 다윗 같은 왕이었을까? 이러한 재구성은 성전 파괴 당시의 정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긴박성이 떨어진다.

이 인물에 대한 재구성은 사해 사본의 이사야서 페쉐르(פֶּשֶׁר)가 발견되면

16) 요세푸스는 B.J. 6.312에 “그때에 유대인의 땅에서 나온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w’j kata. to.n kairo.n evkei/non avpo. th’j cw,raj autw/n tij a:rxei th’j oivkoume,nh’j)”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이 한 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에토니우스는 1인칭이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 타키투스 역시 두 명에(베스파시아누스 & 티투스) 이 예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세푸스가 유대 대 반란에 참여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단수가 더 가능성이 높다.

서 가능해졌다.<sup>17)</sup> 쿰란 제 4 동굴에서 발견된 4Q161과 4Q285에서 사 10장 34절에 대한 해석이 발견되었는데, 재구성된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sup>18)</sup>

[ואשר אמר וניק ו סו כי ה]יער ברזל ה[מה]  
 [מ ל לחמת כתיאים ו ב ון בא]דיר  
 [פ ל שרו ל ה] כתיאים אשר ינת[נ] ביד דו ו [ ]  
 [ים ב רחו מ פ[ני יש]רא ] ]

[말하기]를 쇠로 그 [뾰족한] 숲을 베시라니 [그것들은]  
 [ ] 키템과 전쟁에 대하여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이것에 대한 페체르의] 위대한 자의 손에 넘겨진 키템에 [대한 것]  
 [ ]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갈 때  
 [4Q161 frags 8-10 line 6-9]

[ ] ישעיה ה ביא נו [ ו סו כי היער  
 [ ] בברז ו ב ון כאדיר י [ ו ויצא חטר גו ישי ]  
 [ ] מח ד יד ו שפ ו את ]  
 [ ] והמית נשיא ה דה צ ח ד יד ]  
 [ ] ם ו מחזו לות ציה והן ]  
 [ ] ח[ל [י] תיים ] [ ]

[ ] 이사야 예언자 쇠로 [그 뾰족한] 숲을 베[시라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 ]  
 [ ] 다윗의 가지 그리고 그들은 [ ]을 재판할 것이다  
 [ ] 공동체의 나사와 [다윗의] 가지는 그를 죽일 것이다 [ ]  
 [ ] 그리고 상처에 의하여 그리고 제사장이 명령할 것이다 [ ]  
 [ ] 키템을 죽이는 것 [ ]  
 [4Q285 frag. 5: 3]

4Q161과 4Q285는 사 10장 22절-11장 5절에 이르는 페체르의 일부인데, 이사야서의 모든 구절을 키템(תיאים = 로마)을 향한 메시아적 종말론적

17) 참조 514쪽 “... ..”ביאורים, מ' קיסטר.  
 18) 4Q161 텍스트는 J. Allegro, *Qumran Cave 4:1* (4Q158-4Q186) (DJD 5), (Oxford: Clarendon Press, 1968), 13-14쪽에서 4Q285의 텍스트는 G. Vermes, “The Oxford Forum for Qumran Research on the Rule of War from Cave 4 (4Q285),” *JJS* 43 (1991), 88쪽에서 왔고 번역은 직역이다.

전쟁으로 해석한다. 이 종말론적 전쟁은 나씨 하에다(נשיא הַנַּחֲשִׁים=공동체의 나씨)와 쟈마흐 다비드(דָּבִיד בֶּן יִשָּׁי=다윗의 가지)라 불리는 다윗 가문의 메시아에 의해 지휘되며, 결국 이기게 된다. 주목할 것은 4Q161과 4Q285 양 사료 모두 사 10장 34절을 해석하는데 있어 키팀(תִּימָם)이 결국 '권능 있는 자'(אֲדִיר)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패한다는 것이다. 결국 '권능 있는 자'(אֲדִיר)는 다윗 가문의 메시아이고, 레바논(לְבָנוֹן)은 로마라는 것이다. 페체르가 쿰란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르인지라, '사 10장 34절의 메시아적 해석이 쿰란의 독특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사 10장 34절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은 쿰란 공동체만의 해석은 아니다. 레바논(לְבָנוֹן)이 성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시프레 드바림(סִפְרֵי דְבָרִים) 6과 애가 라바(אֵיכָה רַבָּה) 4에서 쓰일 뿐 아니라,<sup>19)</sup>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반에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 제 2 바룩서(Syriac Apocalypse of Baruch) 36-40은 사 10장 34절이 쿰란 공동체 밖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되어진 좋은 예이다.<sup>20)</sup> 따라서 사 10장 34절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이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이 기다렸던 구원의 희망이자 '구원의 징조'였을 수 있다.

사 10: 34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랍비 문학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한 반란군
הַלְבָנוֹן	성전(성소)	키팀(로마)
בְּאֲדִיר	베스파시아누스	다윗 가문 메시아
יָפוּל	베스파시아누스가 성전을 파괴할 것을 이야기 함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를 것을 이야기 함

위의 재구성에 따르면, 사 10장 34절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유대 대 반란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사 10장 34절에 근거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할 다윗 가문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야 10장 34절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베스파시아누

19) Sifre Deuteronomy 6 (Finkelstein, 14쪽). 참조 G. Vermes, "The Symbolic Interpretation of Lebanon in the Targum," *JTS* ns 9 (1958), 1-12쪽.

20) R. Bauckham, "The Messianic Interpretation of Isa. 10:34 in the Dead Sea Scrolls, 2 Baruch and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Dead Sea Discoveries* 2.2 (1995), 206-216쪽.

스를 통해 성전이 멸망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었던 듯 하다.

### 3. 사 10장 34절과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 재구성

지금까지 70년 아브월 9일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취했던 정치 행동을 묘사한 요세푸스를 살펴보면, 그 속에 사 10장 34절을 근거로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재구성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유대 대 반란에 영향을 미쳤을까?

메시아 사상이 유대 대 반란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 사상이 유대 대 반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 반란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1) 무능력한 총독과 강압적인 로마 행정;<sup>21)</sup> 2)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대인의 갈망;<sup>22)</sup> 3) 빈부의 격차가 주는 계층간의 문제;<sup>23)</sup> 4)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5) 유대인 사이에서의 파워 게임<sup>24)</sup>이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들을 볼 때,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멸망으로 이끈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아적 예언에 대한 영향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25)</sup>

21) 예를 들면 H. Graetz, J. W. Jack, G. Webster, M. Stern, E. M. Smallwood, L. Levine, L. Schiffman이 이 입장을 취하였다. 이 입장에 대한 요약은 위해서 아래를 보시오. P. Bilde,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SJ* 10 (1980), 179쪽; W. R. Domeris, "Jews and Romans, A study of the Outbreak of the Jewish Revolt," M. Sharon(ed.), *Judaism in the Context of Diverse Civilization*, (Johannesburg: Maksim Pub., 1993), 138-151쪽; L. Schiffman, *From Text to Tradition* (Hoboken, NJ: Ktav Publishing House, 1991), 157-8쪽; 보라 또 144-143쪽 ,... .. ישראל לבין, מגמות.

22) 예를 들면, Mommensen, W. Weber, Momigliano, S. G. F. Brandon, W. R. Farmer, M. Hengel, U. Rappaport, M. Stern 등. Cf) P. Bilde, *윗글*, 179쪽. 143쪽 ,... .. ישראל לבין, מגמות.

23) E.g. S. Applebaum (1971), 158-9쪽; 166-8쪽. Applebaum은 사회적 불만이 유대 대 반란의 기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조 C. A. Evans, "Jesus' Action in the Temple and the Evidence of Corruption in the First Century Temple," *SBL* (1989), 524-538쪽; W. R. Domeris, *윗글* (1993), 141, 151-154쪽. R. A. Horsley/J. S. Hanson,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at the Time of Jesus*, (Harrisburg, PA: Trinity International Press, 1999), 245쪽; idem., "Messianic' Figures and Movements in First-Century Palestine," J. H. Charlesworth(ed.),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76-95쪽. Horsley는 빈부간의 격차가 사회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24) 참조 M.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Cambridge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S. Mitchell, "[On] Martin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1987)," *JJS* 39, 1 (1988), 108-112쪽.

25) Contra Hengel, *윗글*, 238쪽. 행겔은 예언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반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또한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은 반란의 초기부터 하나의 **정형화된 집단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기보다는 **다양하고 개인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차 성전 유대교라는 ‘우산(umbrella)’ 안에서 여러 집단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다양했었지만 공존할 수 있었듯이,<sup>26)</sup> 유대 대 반란이라는 정황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분리와 갈등이 있을 만큼 결정적인 사안이 아닌 듯 하다. 이는 유대 대 반란의 경우 반란을 이끄는 인물 여러이라 하나의 통일된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각 인물의 메시아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이들의 메시아로 생각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sup>27)</sup> 만약 반란군들이 하나의 통일된 집단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적 리더를 따르고 있었다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치기 직전까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한 그룹은 기스칼라의 요한을 따르고, 다른 한 그룹은 시몬 바르 기오라를 따르고) 서로 죽이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을 했다고 생각한다: “it provided the members of the new movement with the certainty that their aspirations were ‘intended by God’”(238쪽).

- 26) 제 2 성전 시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종말론이 없는 메시아도 있었고,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는 종말도 있었다. 메시아 또한 하나의 역할이 기대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할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명의 메시아가 등장하는가 하면, 쿨란과 같이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공동체도 있었다. 초기 유대 메시아 사상은 때때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곤 한다. 참조 J. J. Collins, *The Scepter and the Star*, (NY, Eerdmans, 1995); M. Smith, “Messiahs: Robbers, Jurists, Prophets, and Magicians,” M. Saperstein(ed.), *Essential Papers on Messianic Movements and Personalities in Jewish Histor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73쪽; E. Rivkin, “The Meaning of Messiah in Jewish Thought,” *USQR* 26 (1970/71), 383-406쪽; S. Talmon, “The Concept of Messiah and Messianism in Early Judaism,” J. H. Charlesworth(ed.),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80쪽.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언자적 인물의 특성과 메시아적 인물의 특성 사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E.g. Judah the Galilean, John the Baptist, Jesus of Nazareth, A Samaritan prophet, Pseudo-Messiah(A.J. 18.85-87); Theudas(B.J. 2.259f.); a Jew from Egypt(A.J. 20.169); Menahem b. Judah; Simeon Bar Giora, 등. 예언자나 메시아 인물에 대한 연구로는 R. Horsley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참조 R. A. Horsley, “‘Like One of the Prophets of Old’: Two Types of Popular Prophets at the Time of Jesus,” *CBQ* 47 (1985), 435-63쪽; idem., “Popular Prophetic Movements at the Time of Jesus: Their Principal Features and Social Origins,” *JSNT* 26 (1986), 3-27; idem., “Messianic Figures and Movements,” (1992), 282-285쪽.
- 27) 이와 같은 상황은 유대 대 반란이 있은 후 약 50년 뒤에 일어나는 바르코크바 반란(Bar Kokhba revolt)과 대조적이다. 바르코크바 반란은 바르코크바라는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거국적인 반란이라 바르코크바에 거는 메시아적 기대를 랍비 문학과 초기 교부들의 저작을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개개인의 메시아적 기대가 용납되었다면 유대 대 반란에 기독교인이 참여하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이차 성전 시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차 성전 시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종파(Sect)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28)</sup> 헝겔(M. Hengel)은 유대 대 반란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재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바르코크바 반란을 바탕으로 유대 대 반란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sup>29)</sup> 하지만 메시아적 성격이 뚜렷한 한 명의 반란군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반란의 이름마저 반란군 지도자의 이름을 딴 바르코크바 반란을 기준으로 하여 많은 비 메시아적인 리더들로 이루어진 유대 대 반란을 재구성하는 것은 방법론적 오류이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말 유대 대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메시아 사상 보다는 펠라로 도망가라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천사(혹은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을 것이다.<sup>30)</sup> 어쨌거나 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에 남아 유대 대 반란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sup>31)</sup>

이러한 다양한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기 전까지 개인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 두 켈릿 집단이 힘을 합칠 무렵, 개인적이고 다양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되어 집단적인 구원의 희망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라

28) M. Smith, "What is Implied by the Variety of Messianic Figures?," *JBL* 78 (1959), 66-72쪽; idem., "The Dead Sea Sect in Relation to Ancient Judaism," *NTS* 7 (1960-61), 1-19쪽; idem., "Zealots and Sicarii, Their Origins and Relation," *HTR* 64 (1971), 1-19쪽.  
 29) Hengel, 윗글, 301쪽: "In Zealotism and early Christianity two eschatological messianic movements were firmly opposed to each other."  
 30) 보라 막 13: 1; Eusebius, *Ecol.Hist* 3,5.3. (천사가 경고한다) Cf. Epiphanius, *Adv.Haer.*, xxix. 7 (예수님이 경고하신다)  
 31)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비르캣트 하미님(ברכת המינים)이 90년대에 수정되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유대교에 율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도 넘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 G. Alon, *The Jews in Their Land in the Talmudic Age*. (Jerusalem, Magnes Press, 1980), 1: 307쪽. 비르캣트 하미님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시오. S. T. Katz, "Issues in the Separation of Judaism and Christianity After 70 CE: A Reconsideration," *JBL* 103 (1984), 76쪽; R. Kimelman, "Birkat ha-Mirim and the Lack of Evidence for an Anti-Christian Jewish Prayer in Late Antiquity," E. P. Sanders(ed.), *Jewish and Christian Self-Defin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London: SCM Press, 1981), 2: 244쪽.



추측해 본다. 위에서 살펴본 B.J. 6.283-5에서 볼 수 있듯이, 젤롯 선지자의 신탁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희망은 솔렘(G. Scholem)의 분류에 따르면, 성격상 '회복적'(restorative)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적'(utopian)일 수도 있다.<sup>32)</sup>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대 반란의 마지막 순간 원했던 메시아적 구원의 희망은 임박한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공통 분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 4. 결론

요세푸스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유대 대 반란의 메시아 사상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유대 대 반란의 끝에 메시아적 구원의 희망이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나는 것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었다.<sup>33)</sup> 이 메시아적 구원의 희망은 요하난 벤자카이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는 여러 버전의 이야기를 통해 사 10장 34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sup>34)</sup>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해석과 적용이 가능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메시아적 구원의 희망은 유대 대 반란 전체로 볼 때, 다양하고 개인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기 직전에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36)</sup>

#### 5. 참고문헌

Allegro, J., *Qumran Cave 4:1 (4Q158-4Q186)* (DJD 5), (Oxford: Clarendon

32) Scholem은 두 개의 가장 큰 메시아 사상의 흐름이 'restorative'한 것과 'utopian'한 것이라고 분류한다. G. G. Scholem,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essianic Idea,"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1), 1-36쪽; L. Schiffman, "The Concept of the Messiah in Second Temple and Rabbinic Literature," *Review and Expositor* 84.2 (1987), 235-246쪽.

33) 이 논문 2.1장을 보라.

34) 이 논문 2.2장을 보라.

35) 이 논문 2.3장을 보라.

36) 이 논문 3장을 보라.

- Press, 1968).
- Alon, G., *The Jews in Their Land in the Talmudic Age*, (Jerusalem: Magnes Press, 1980).
- Bauckham, R., "The Messianic Interpretation of Isa. 10: 34 in the Dead Sea Scrolls, 2 Baruch and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Dead Sea Discoveries* 2.2 (1995), 202-216쪽.
- Bilde, P.,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SJ* 10 (1980), 179-202쪽.
- Collins, J. J., *The Scepter and the Star*, (NY: Eerdmans, 1995).
- Domeris, W. R., "Jews and Romans; a Study of the Outbreak of the Jewish Revolt," *Judaism in the Context of Diverse Civilization*, (Johannesburg: Maksim Pub., 1993), 137-156쪽.
- Evans, C. A., "Jesus' Action in the Temple and the Evidence of Corruption in the First Century Temple," *SBL* (1989), 524-538쪽.
- Farmer, W. R., *Maccabees, Zealots, and Joseph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 Goodman, M.,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Cambridge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engel, M., *The Zealots*, (Edinburgh: T. & T. Clark, 1974).
- Horsley, R. A., "Popular messianic Movements around the Time of Jesus," *CBQ* 46 (1984), 471-95쪽.
- \_\_\_\_\_, "Like One of the Prophets of Old: Two Types of Popular Prophets at the Time of Jesus," *CBQ* 47 (1985), 435-63쪽.
- \_\_\_\_\_, "Messianic' Figures and Movements in First-Century Palestine," J. H. Charlesworth(ed.),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76-95쪽.
- Horsley, R. A./J. S. Hanson,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at the Time of Jesus*, (Harrisburg, PA: Trinity International Press, 1999).
- Katz, S. T., "Issues in the Separation of Judaism and Christianity After 70 CE: A Reconsideration," *JBL* 103 (1984), 43-76쪽.
- Kimelman, R., "Birkat ha-Minim and the Lack of Evidence for an Anti-Christian Jewish Prayer in Late Antiquity," E. P. Sanders(ed.), *Jewish and Christian Self-Defin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London: SCM Press, 1981), 2: 244쪽.
- Meier, J. P., "Jesus in Josephus: A Modest Proposal," *CBQ* 52 (1990),

76-103쪽.

- Meyer, R., *Der Prophet aus Galilaea*, (Darmstadt: WB, 1970)
- Mitchell, S., "[On] Martin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1987)," *JJS* 39, 1 (1988), 108-109쪽.
- Neusner, J., *A Life of Rabban Yohanan ben Zakkai*, (Leiden: E. J. Brill, 1960)
- \_\_\_\_\_, *Development of A Legend: Studies on the Traditions Concerning Yohanan ben Zakkai*, (Leiden: E. J. Brill, 1970).
- Rivkin, E., "The Meaning of Messiah In Jewish Thought," *USQR* 26 (1970/71), 383-406쪽.
- Schiffman, L., "The Concept of the Messiah in Second Temple and Rabbinic Literature," *Review and Expositor* 84.2 (1987), 235-246쪽.
- \_\_\_\_\_, *From Text to Tradition*, (Hoboken, NJ: Ktav Pub. House, 1991).
- Scholem, G. G.,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essianic Idea," G. Scholem(ed.),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1), 1-36쪽.
- Smith, M., "Messiahs: Robbers, Jurists, Prophets, and Magicians," M. Saperstein(ed.), *Essential Papers on Messianic Movements and Personalities in Jewish History*, (New York University, 1992), 73-82쪽.
- \_\_\_\_\_, "What is Implied by the Variety of Messianic Figures?," *JBL* 78 (1959), 66-72쪽.
- \_\_\_\_\_, "The Dead Sea Sect in Relation to Ancient Judaism," *NTS* 7 (1960-61), 1-19쪽.
- \_\_\_\_\_, "Zealots and Sicarii, Their Origins and Relation," *HTR* 64 (1971), 1-19쪽.
- Stern, M., *Greek and Latin Authors on Jews and Judaism*, Vol. II (Jerusalem: Israel Academy of Arts and Science, 1974, 1980).
- Talmon, S., "The Concept of Messiah and Messianism in Early Judaism," J. H. Charlesworth(ed.),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79-115쪽.
- Vermes, G., "The Oxford Forum for Qumran Research on the Rule of War from Cave 4 (4Q285)," *JJS* 43 (1991), 85-90쪽.
- \_\_\_\_\_, "The Symbolic Interpretation of Lebanon in the Targum," *JTS* ns 9 (1958), 1-12쪽.
- מ' קי מר , "יאורים אגרות החורן באות דר י נתן", תר יץ סז

(תשנ"ח) 483-529.

ישראל ל ין, ג ות שי יות וף י י ה ית שני בתו : שיחיות  
ואסכטולוגיה, עורך צ י רס (ירושלים, תש"ד), ע ' 135-152.

검색어

메시아

메시아 사상

유대 대 반란

이사야 10장 34절

요세푸스

투고일: 2010년 10월 15일

심사일: 2010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0일

156 최 중화 구약논단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

## Isaiah 10: 34 and the Jewish Messianism in the Great Revolt

---

**Jung-Hwa Choi**

Visiting Professor at the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Dr. Phil

This paper aims at reconstructing Jewish messianic expectation during the Great Revolt(AD 66-70). Reconstructing Jewish messianic expectation during the Great Revolt is not an easy task because Josephus remains silent on anything messianic. Thus, instead of taking passages directly from Josephus, an alternative approach will be taken by focusing on the socio-political behaviour of the Jews at the eve of the de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B.J.* 6. 285): when thousands of Jews were waiting for divine intervention, a zealot prophet delivered an oracle that God wanted the Jews to go up to the Temple and to wait for the “signs of deliverance.” The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 socio-political behaviour in *B.J.* 6. 285 was caused by messianic expectation, and also that, at the centre of the messianic expectation, there might have been Isaiah 10: 34 as a scriptural basis.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there existed two different interpretation of Isaiah 10:

34 available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volt. On the one hand, the participants of the Great Revolt might have interpreted Isaiah 10:34 as a prophecy for the Messiah coming to destroy the Romans, while others, as appears in Josephus, Tacitus, Suetonius, and rabbinic literature, interpreted the same verse as applied to Vespasian and Titus.

The messianic expectation in the Great Revolt, in general, seems to have been varied and individual during the most part of the Great Revolt. Several leaders came up along with their followers possibly with some sort of messianic expectation. Therefore, there was no reason for the early Christians not to take part in the revolt.

At the end of the revolt, upon impending fall of the Jerusalem Temple, two groups of zealots stopped fighting each other, and a collective hope for miraculous divine salvation became powerful amongst the Jews possibly right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zealot prophet as testified in *B.J.* 6. 285. The messianic hope, as mentioned above, wa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10: 34.

#### **Keywords**

Jewish Messianism  
the Great Revolt  
Messianism  
Josephus  
Isaiah 10:34